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李鍾容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한방의료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 3면
◉사진으로 보는 하계수련회 이모저모 …… 4·5면
◉여름철 보약 복용법 …… 8면

생약인의 한마당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

2백여명 참석한 가운데 행사 다채

기주제로 건강특강, 자생약초 채취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 1일 1박2일 일정으로 제2회 하계수련대회 및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를 가졌다.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 1일 1박2일 일정으로 단양군 소재 소백산에서 제2회 하계수련대회 및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단양군 곽일섭 부군수,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과 이득로 과장을 비롯 생산자 소비자 회원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됐다.

생약협회 이종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방화시대 우리생약 살리기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자생약초 서식지를 답사하고 국내 생약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행사 첫날은 목포대학교 임경택 교수의 기를 주제로 한 건강특강을 듣고 이어 생약인의 한마당 제2부 행사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졌다.

행사 둘째날에는 경희대 한의대 안덕균 교수를 초빙 자생약초 채취 요령 및 효능, 복용법에 관한 강의와 함께 소백산에 자생하는 다양한 생약초의 생태를 관찰하고 직접 채취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 김성훈씨(42·서울 마포구 합정동)는 『맑은 자연속에서 산행도 하고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야생식물의 이름과 쓰임새에 대해서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고 흡족해 했다.

집중호우로 약초 피해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 심각

경기북부지역에 며칠을 두고 쏟아진 폭우로 인해 두달여 수확기를 앞둔 약초밭이 침수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집중호우는 연간 강수량의 약 절반을 불과 4~5일 사이에 한꺼번에 퍼부은 것이라서 감히 그 위력을 짐작할 만 하다.

특히 비 피해가 극심한 경기도 연천지역의 경우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집중호우로 임진강이 범람, 황기 당귀 등 약초밭 수십만평이 유실되거나 토사에 묻혀 올 가을 수확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수입 천궁 추출물에서

맹독성 농약 검출돼

3개 약재서 기준치이상, 복지부 발표

맹독성 농약이 함유된 생약 추출물이 수입돼 한방엑기스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 상반기 중에 수입된 생약추출물 28개를 임의로 선정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이중 3개 약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산 천궁추출물에서는 맹독성 농약 엔드린이 기준치(10ppb)보다 높은 16ppb가 검출됐고, 중국산 산소유연조진액에서도 농약성분인 BHC가 2백33ppb로 기준치(2백ppb)를 초과했다. 또 이탈리아산 생약제인 센텔라아시아티카의 정량 추출물에서는 농약 디엔드린이 기준치(10ppb)보다 2.7배 많은 27ppb가 검출됐다.

복지부는 올 1월1일부터 생약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생약제제의 경우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유기염소계 농약 5종의 잔류허용치를 신설했으나, 생약추출물의 경우 중금속 기준치만 있고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도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검사가 표본추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생약추출물이 시판중인 어느 제품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업체들이 수입한 생약 추출물은 38만6천8백여kg이다.

KBS에 수재의연금 기탁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하계수련회 기간 동안 생산자 소비자 회원으로 부터 모금한 수재의연금 1백17만3천원을,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생활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해 써 달라고 KBS에 기탁했다.

"우리 약재는
우리 손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생약재는 오천년 역사 속에서 조상대대로
선조들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가격경쟁이 안된다고 재배를 포기해서야,
비싸다고 우리것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것 '하나'를 지키는 일이
남의 것 '두개'를 차지하는 것 보다
더욱 값진 일입니다.

사단법인 한 국 생 약 협 회